

풍경(風磬)

Wind chime

글. 최상철 Choi, Sangcheol · KIRA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물이 무색무취(無色無臭)하다면, 바람은 무형무질(無形無質)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곧잘 바람을 천변만화(千變萬化)의 표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모두 다 지형지물을 적절히 활용해내는 바람의 속성 탓이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기압차에 의해 이 세상에 홀연히 나타나서는, 시시각각 온갖 물상에 닿는 감촉(風壓)으로 제 존재의미를 부여해놓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삶의 속도(風速)를 가감하기도 하고, 또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어 사라지기도 하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녀석이다.

그 바람이,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 처마 밑으로 찾아왔었나보다. 자지러지는 풍경소리에 재빨리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보았지만, 어느새 바람은 허공으로 여음(餘音)을 흩뿌린 채 사라져버린 뒤였고, 추녀 끝에 내달린 애꽃은 풍경(風磬)만이 제 몸을 마저 뒤척이고 있었다. 지금이야 풍경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추녀 밑에 걸어두기도 하고, 때로는 자주 여닫는 문올거미 위쪽에 달아두었다가 그 방울소리로 인기척을 가늠하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나는 가끔 바람이 던져놓고 달아난 저 메시지에서 어릴 적 무심코 들던 위낭소리를 연상해내곤 한다.

해질녘이 되면, 소막(牛舍) 구시 앞에서 질척질척한 타액을 질질 흘리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던 어미 소(牛) 한마리가 쇠파리 떼의 등살에 꼬리만 이리저리 휘휘 내젓다가, 어느 순간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제 고개를 한 번 더 크게 휘저을 때마다, 마당을 곧장 가로질러 건넌방까지 쫓겨거리며 들려오던 그때 그 위낭소리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못 애잔한 영상 하나가 절로 반추된다. 어느 장날 이른 아침, 낫선 고삐에 묶여 급작스레 우시장(牛市場)으로 끌려 나간 제 새끼생각에 몸살이 나는지, “음메~, 음메~” 내지르는 울음소리에 뒤섞여 밤새 들려오던 위낭소리는, 사실 단장(斷腸)의 변주곡이었다.

물론 음(音)이야, 그렇게 듣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처마 밑에서 울려 퍼지던 풍경소리 자체는 그게 모두 “바람 뜻”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랬던지 일반 여염집에서는 함부로 처마에 풍경을 내다 걸지 않았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 지조



없음도 경계했으려니와, 갑자기 요란스레 울려 퍼지는 금속성 소리가, 조용한 주거공간에서 때로는 귀청을 때리는 불청객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풍경이 추녀 밑에 내달리게 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따로 있었다. 이른바 인적(人迹)의 전초부대였다고나 할까? 처마 끝에서 동심원처럼 울려 퍼지는 풍경소리를 통하여 산짐승들이 발길을 돌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긴장과 살상이 미리 저지되었으니, 분명 풍경(風磬)은 인간과 맹수 사이에 암묵적으로 설정된 일종의 ‘평화경계선’을 지키는 불침번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냈다고 할 수 있겠다. 어찌 되었건, 허기진 배를 채우려 산 아래로 어슬렁거리며 내려오던 산짐승들에게 귀청을 파고드는 풍경소리는 금속성 소음(騷音)이었을 테고, 또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 구원의 청음(淸音)이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풍경소리에 그렇게 귀 기울일 맹수도 사라졌고, 이제는 찾아오는 바람마저도 예전 같지 않다. 게다가 기근(饑饉)에 허덕이다 어쩔 수 없이, 민가를 찾아 내려오는 산짐승들마저도, 지금은 그저 엽사(獵師)들을 풀어 총으로 갈겨대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세상이 되었다. 추녀 밑 풍경소리로 설정해놓은 ‘평화경계선’이 이미 허물어져버린 것이다. 그렇게 짙어가다 보니, 우리건축에서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자는 ‘사랑의 메시지’ 하나가 영영 사라지고 만 것 같아 아쉬운 마음 감출 길 없다.

저렇게 문이 여닫힐 때마다 삽살개처럼 마구 몸을 흔들며 짖어대는 저 풍경(風磬)이, 한 때 제 찬란했던 전설을 기억이나 할런지 모르겠다.